

#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 The Differences in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between Low-Fertility and Birth-Planned Household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전임강사 차 경 옥\*\*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Full-time Instructor : Cha, Kyung-Wook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one-child households' economic structures between those who determined not to have more children and those who have a birth plan. This study examin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assets, debt, and a subjective evaluation of future economic status. Especially, it compare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expenditures on a child between low-fertility and birth-planned households. From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a husband or wife of one-child households, 154 low-fertility households and 201 birth-planned households were obtained. A t-test, chi-square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dummy variable interaction technique were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w-fertility households were older, had higher income, and had more educated, employed wives. Their marital duration was longer, and their child was older than those of birth-planned households.

Second, low-fertility households had higher consumption expenditures than did birth-planned households. Especially, expenditures of apparel and shoes, health care, education, and entertain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low-fertility households. Also, low-fertility households spent more than did birth-planned households on a child. However, low-fertility households had significantly more debt than did their counterparts, and their expectation level of future economic status were lower than that of birth-planned households.

Thir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expenditures on a child were different between low-fertility and birth-planned households. Age, education level, husband's occupation, wife's employment status, income, net asset,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future economic stat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come elasticity of expenditure on a child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low-fertility households than their counterparts.

▲주요어(Key Words) : 저출산가계(low-fertility household), 출산계획 있는 가계(birth-planned households), 가계경제구조(household economic structure), 자녀양육비(expenditure on children)

### 1. 서 론

지속적으로 출산 억제를 강조해 오던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최근 들어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하였다. 1950년대 최고

6.3명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85년 이후 인구대체율(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replacement fertility rate)로 평가되는 2.1명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 되었고,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통계청, 2002; 조선일보 2004년 6월 28일자).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5~44세 여성 중 58.1%만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1991년 조사의 90.3%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또한 중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차경옥 (E-mail : kwcha@sungshin.ac.kr)

양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의 24%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한 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57%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기혼의 65%, 미혼의 68%가 자녀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함으로서,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중앙일보, 2004년 9월 15일자).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결혼가치관의 변화, 초혼연령 상승과 독신자 증가, 여성 취업률 증가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자녀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담, 자녀양육 및 교육비 증가,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 증대 등 사회·경제적 현상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과 걱정이 집중되는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데 있다. 출산율이 2.1에서 1.4 수준이 되는데 일본은 30년, 네덜란드는 29년이 걸린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불과 16년 밖에 안 걸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2040년 정도에는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두 명이 일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일보, 2003년 2월 18일자). 세계 최저수준인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10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인 1,62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동아일보, 2004년 1월 8일자). 출산율이 급락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인구 노령화가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일으킨 원동력이 노동력이었다는 점을 인지할 때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진다.

때문에 최근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구국의 결단'이며, 자녀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의 상징'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많은 조사와 언론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만 절감되면 많은 가정들이 자녀출산에 적극적이 될 것인가? 취업주부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 한 명에게 과도한 소비지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한 명의 자녀에게 과거 2~3명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가계경제학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와 관련부처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보험료비 면제, 주민세 감면, 출산장려금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출산을 결

정한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수준을 감안하여, 자녀 1명으로 출산을 완료한 가정을 저출산가계로 정의하는 가운데, 저출산가계의 경제구조 및 행태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가정관리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얼마나 그 실효성을 거두어낼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출산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잠재적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관련문헌 고찰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생물적 과정이지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 한 가정을 이룬 부부는 자녀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 만약 낳는다면, 언제 몇 명을 낳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계경제학 이론(Economic Theory of the Family)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Becker, 1993; Bryant, 1990; Schultz, 1982; 문숙재·정순희·허경옥, 2000). 자녀와 부모 상호간에는 물질적, 정신적 자원이전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효용이 창출된다. 예컨대, 부모-자녀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나 보살핌 등이 가족 내 만족감을 창출하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자녀가 가정의 경제활동을 위해 생산력을 제공한다. 과거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자녀가 생산 활동을 하는 노동력으로서 큰 역할하고, 그로 인한 효용이 매우 컸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수요가 컸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보다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이 더 크게 인식되면서 자녀를 낳을 것인가 낳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Espenshade(1984)는 한 자녀일 경우 가계소득의 약 38%, 두 자녀일 경우 약 40~45% 정도가 양육비로 지출된다고 하였다. 국내의 허경옥(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자녀 가계의 경우 가계소득의 37%, 두 자녀 가계의 경우 46%가 지출되며,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양육비는 한 자녀가계의 경우 1억 2천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상당부분이 투입되어 많은 가정에서 자녀교육비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 뿐 아니라, 많은 시간비용이 든다. 자녀 출산은 매우 시간집약적인 생산 활동이다. 자녀양육의 시간비용은 결국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시간비용이며 그들이 다른 모든 대안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이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시간가치가 높아질 때 자녀생산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되며, 따라서 가계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서 일정 만족 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재화의 소비를 위해 자녀의 인적자본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Bryant, 1990; 여정성, 1994).

일반적으로 자녀의 효용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과 정비례하고, 여성의 기회비용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전적인 선행연구들은 기혼여성의 시간비용 상승이 출산력을 감소시키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력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Becker, 1965; Schultz, 1982; Cain & Dooley, 1976). 우리나라의 자료를 분석한 구성열(1979)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임금수준과 출산력이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 주었으나,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출산력은 다소 약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부모는 다른 재화로부터 얻는 효용과 자녀를 통해 얻는 효용 간에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녀 출산으로부터 얻는 만족과 이미 가진 자녀의 질의 추가적인 상승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비교한다. 이 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는 자녀수에 대한 수요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자체가 정상재라 할지라도, 부유한 가계는 가난한 가계 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며, 자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다(Bryant, 1990; Kooreman & Wunderink, 1997; 여정성, 1994).

우리나라 주부들의 이상 자녀수 감소 현상에 대해 연구한 김혜순(1982)에 따르면,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남아선호도가 낮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의 우리나라 출산력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조대회·김유경(1993)의 연구에서는 출산 결정에 있어 연령, 초혼연령, 피임사용 등 인구생물학적 요인들과 취업관계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대신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역 등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저출산가계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출산현상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결혼·출산관련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소득·소비지출구조, 자녀양육비 지출, 자산·부채구조 및 가계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 및 자녀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특히 소득탄력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녀가 1인이며,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가입여성인 가계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족 내부 및 외부 환경 특성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1인 자녀가계로 선정하였으며 무자녀가계는 제외하였다. 또한 인구 대체율이 2.1로 평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02년 1.17, 2003년 1.19인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가계를 저출산가계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를 비교집단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가계에 속하는 부부 중 일인이 응답하되,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도록 고안하였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에서 편의(bias)를 줄이기 위해 편부모가계, 원가족과 경제생활을 공유하는 확대가족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4년 6월 28일부터 8월 30일 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23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 기재되거나 분석에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35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저출산가계는 총 조사대상자의 43.4%를 차지했다. 반면 남편과 아내 중 한명만이라도 자녀를 더 낳기를 원하는 경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 중 과반수 이상이 부부 중 일방만 자녀출산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주양육자인 아내가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녀 1명으로 출산을 완료하고 저출산가계가 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확실하게 둘째 자녀를 갖게 될 가계는 총 조사대상자의 27.6%에 불과한 것이다.

<표 1> 저출산가계의 구분기준 (n=355)

구분		빈도 (%)
저출산가계	부부 모두 더 이상 출산을 원하지 않음 (자녀 1명으로 출산완료)	154 (43.4%)
출산계획 있는가계	남편만 더 출산하기를 원함	69 (19.4%)
	아내만 더 출산하기를 원함	34 (9.6%)
	남편, 아내 모두 더 출산하기를 원함	98 (27.6%)
		201 (56.6%)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거주형태) 및 결혼·출산관련 특성(결혼지속기간,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자녀연령 및 성별, 이상 자녀수)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각 비목별 소비지출규모, 평균소비성향,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규모와 지출구성비, 형태별 자산규모, 형태별 부채규모 및 순자산 등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t-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가계의 총 소비지출과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모델(OLS)을 구성하였고, 이 모델에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을 추가하여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즉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를 구분하는 가변수(저출산가계=1, 출산계획 있는 가계=0) 및 그 가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가변수\*독립변수 벡터)을 회귀모델에 포함시켰다. 각각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하게 다르게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n Ci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ln(inc) + \dots + \beta_n X_n + D_i (\beta_{0i} + \beta_{1i} X_1 + \dots + \beta_{ki} \ln(inc) + \dots + \beta_{ni} X_n)$$

여기에서  $\ln Ci$  는 지출비목  $i$  ( $i$  =총소비지출,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에 대한 월평균 소비지출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고,  $X_1$ 부터  $X_n$ 까지는 독립변수들을 나타내며, 이 중  $\ln(inc)$ 은 월평균가계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D_i$ 은 가변수로서 출

산계획 있는 가계는  $D_i = 0$ , 저출산가계는  $D_i = 1$ 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때 각 독립변수들이 갖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출산계획 있는 가계 [ $D_i = 0$ ]

$$\ln Ci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ln(inc) + \dots + \beta_n X_n$$

저출산가계 [ $D_i = 1$ ]

$$\ln Ci = (\beta_0 + \beta_{0i}) + (\beta_1 + \beta_{1i}) X_1 + \dots + (\beta_k + \beta_{ki}) \ln(inc) + \dots + (\beta_n + \beta_{ni}) X_n$$

이 때  $\ln(inc)$ 의 회귀계수에 해당하는 값이 소득탄력성이 되는데, 위의 식에서 보는 것처럼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우  $\beta_k$ , 저출산가계의 경우  $(\beta_k + \beta_{ki})$ 이 이에 해당된다. 만약  $\beta_{ki}$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해당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하게 차이를 의미한다. 소득탄력성은 실제 소비지출의 성취정도와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함수로서, 성취되지 않은 욕구가 클수록 소득탄력성이 높고, 가구구성원들은 증가된 소득을 그 비목에 많이 사용한다(Magrabi, Chung, Cha & Yang, 1991). 그러므로 집단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지출행동 및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일반적 특성 비교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154 저출산가계와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201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 및 출산관련 특성 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각각 38세, 35세 정도로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남편 36세, 아내 33세)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저출산 결정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내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대졸(전문대졸 포함)인 경우에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74.7%)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70.4%) 보다 많은 반면, 아내의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고학력 집단에서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25.1%)의 비율이 저출산가계(16.2%) 비율 보다 높았다.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출산계획을 가진 가계(55.3%)의 비율이 저출산가계(40.1%) 비율 보다 높았으며, 아내가 서비스직, 사무직이나 전문기술직, 관리직에 속하는 가계들은 상대적으로 저출산을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노동참여

<표 2>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일반적 특성 비교<sup>a),b)</sup>

변인		전체 (n=355)	저출산가계 (n=154)	출산계획 있는 가계 (n=201)	t / $\chi^2$	
<b>인구사회학적 변인</b>						
연령 (세)	남편	36.54(4.48)	37.66(4.27)	35.65(4.35)	4.35***	
	아내	34.16(4.30)	35.28(4.19)	33.28(4.07)		
교육 수준	남편	고졸이하	19 (5.4)	8 (5.2)	11 (5.5)	0.42
		대졸(전문대졸)	231(65.3)	100(64.9)	131(65.5)	
		대학원 이상	104(29.4)	46(29.9)	58(29.0)	
	아내	고졸이하	23 (6.5)	14 (9.1)	9 (4.5)	
대졸(전문대졸)	255(72.2)	115(74.7)	140(70.4)			
대학원 이상	75(21.2)	25(16.2)	50(25.1)			
직업	남편	무직, 학생	14 (4.1)	6 (4.0)	8 (4.2)	2.63
		서비스/사무직	144(42.5)	71 (48.7)	73(38.6)	
		전문기술/관리직	181(53.4)	73 (48.7)	108(57.1)	
	아내	전업주부, 학생	170(48.7)	61(40.1)	109(55.3)	
서비스/사무직	56(16.0)	32(21.1)	24(12.2)			
전문기술/관리직	123(35.2)	59(38.8)	64(32.5)			
월평균가계소득 (천원)		3,867(1,780)	4,106(1,858)	3,707(1,706)	2.32*	
거주 형태	자가	221(63.0)	103(67.3)	118(59.6)	2.93	
	전세, 월세, 기타	130(37.0)	50(32.7)	80(40.4)		
<b>결혼 및 출산관련 변인</b>						
결혼지속기간		6.35(4.43)	7.68(4.48)	5.30(4.14)	5.13***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 기간		1.76(1.27)	1.95(1.57)	1.61(0.98)	2.37*	
자녀 연령 (세)		5.37(4.10)	6.32(4.06)	4.64(3.97)	3.91***	
자녀 성별	남성	188(53.7)	84(54.9)	104(52.8)	0.11	
	여성	162(46.3)	69(45.1)	93(47.2)		
이상 자녀수	1명	73(20.7)	50(32.5)	23(11.6)	29.5***	
	2명	211(59.8)	83(53.9)	128(64.3)		
	3명 이상	69(19.6)	21(13.6)	48(24.1)		
	평균	2.04(0.76)	1.84(0.75)	2.16(0.68)		-4.18***

<sup>a)</sup> 각 수치는 평균(표준편차) 또는 빈도(%)를 나타냄

<sup>b)</sup>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 p<.05, \*\*p<.01, \*\*\*p<.001

및 취업지위, 즉 자녀출산의 기회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 일 것이다. <표 2>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추가 적으로 여성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사대 상의 71%가 육아부담이라고 답하여 사회적 편견·차별적 관행 (13%)이나 직업의식의 부족(6.7%)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것 은 이와 상통하는 맥락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3백 86만원 정도 로, 통계청(2004)이 발표한 2004년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 평균소득(2백 97만원)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저출산가계가 약 4백 10만원,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약 3백 70

만원으로,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소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 다. 거주형태의 경우, 저출산가계의 67.3%, 출산계획 있는 가계 의 59.6%가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각 가계의 결혼 및 출산관련 특성들을 살펴보면,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결혼지속기간이 7.68년,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결혼지속기간이 5.30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 역시 저출산가계(1.95년)가 출산 계획 있는 가계(1.61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서, 결혼 지속기간이 길고 첫 자녀를 늦게 낳은 가계가 더 이상 출산을

계획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연령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4.6세)에 비해 저출산가계(6.3세)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자녀의 성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아선호도가 상당히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남아에 대한 선호가 크다면,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여아 비율이 높고, 저출산가계의 남아 비율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가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 60%가량이 2명이라고 답했으며, 평균 2.04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한 저출산가계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43.4%인데 반해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고 답한 가계는 20.7%에 불과한 점, 특히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상이라고 답한 점을 볼 때,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하는 가계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 1)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를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저출산가계의 월평균소득(4백 10만원)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월평균소득(3백 70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보고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

득수준이 더 낮은 가계가 저출산을 선택하고, 소득수준이 더 높은 가계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맞벌이부부의 가계소득이 높고,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용소득 보다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다르므로, 자녀를 한 명만 낳고도 2~3명 이상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려는 가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모든 조사대상이 자녀 1명인 핵가족 가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출산계획 여부에 따라 분류된 두 집단 간에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의 소비지출비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의 경우, 저출산가계가 46만원,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41만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피복·신발비도 저출산가계(20만원)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16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이 지출했고, 보건의료비 역시 약 19만원 정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저출산가계가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와 교양·오락비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저출산가계의 교육비는 55만원,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교육비는 46만원 수준이었고, 저출산가계는 교양·오락비로 12만원, 출산계획 있는 가계는 교양·오락비로 9만 6천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의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 보다 많은 액수를 지출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료품비, 외식비, 교통·통신비의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다.

<표 3>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비교

(n=355, 단위: 천원)

	저출산가계 (n=154)	출산계획있는 가계 (n=201)	t-stat	저출산/출산계획가계 비(ratio)
월평균가계소득	4,105.9	3,706.6	2.32*	1.11
총소비지출	2,629.6	2,354.1	1.57	1.12
식료품비	462.4	406.5	2.02*	1.14
외식비	269.9	258.7	0.41	1.04
주거비	252.7	246.7	0.18	1.02
광열·수도비	106.6	95.5	1.52	1.12
가구집기·가사용품비	88.7	78.4	1.32	1.13
피복·신발비	198.0	160.9	2.01*	1.24
보건·의료비	91.4	72.4	2.87**	1.26
교육비	546.5	463.3	2.75**	1.18
교양·오락비	123.6	96.5	2.38*	1.28
교통·통신비	268.2	255.0	0.71	1.05
기타소비지출	211.6	218.4	-0.23	0.97
평균소비성향	.641	.635	0.03	1.01

\* p<.05 \*\*p<.01 \*\*\*p<.001

2) 자녀양육비와 자녀교육비

<표 4>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와 추가적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규모 및 양육비 지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자녀양육비 총액과 이 중 자녀교육비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 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에서 유의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가계의 경우,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녀 한명에 대한 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녀양육비와 교육비가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총 소비지출의 25.6% 가량인 67만원을 자녀간식비, 자녀의류비, 자녀교육비, 장난감 구입비 등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으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는 총 소비지출의 24.3% 가량인 56만원을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교육비로 저출산가계는 52만원을, 출산계획 있는 가계는 4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비 지출이 소비지출비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가, 이 중 대부분을 자녀교육을 위해 지출할 정도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양육비 총액에서 자녀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두 집단 모두 78~79%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각 가계가 현재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다른 가계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가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집단에서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다른 가계

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많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저출산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다소 비밀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자녀 한명에 대한 기대이익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집단과 많은 비용 지출을 인지하는 부모집단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집단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상대적, 주관적인 질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가계가 준거로 삼은 비교집단이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가진 것으로 예상된다.

3) 자산 및 부채구조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보유비율 및 평균자산액과 평균부채액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계의 자산총액 평균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부채총액 평균은 저출산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각 항목별로 보유자산이 없는 가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보유액이 더 높았으며, 현금성자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과 기타자산의 보유액은 저출산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61%, 투자자산을 보유한 가계 비율이 48%,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70%, 기타자산 보유율이 53%가량이었으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는 현금성자산 보유율 73%, 투자자산 보유율 64%, 부동

<표 4>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 비교

(n=355)

	저출산가계 (n=154)	출산계획 있는 가계 (n=201)	t / $\chi^2$	저출산/출산계획가계 비(ratio)
지출 규모 (천원) <sup>a)</sup>				
자녀양육비 총액	673.2 (502.4)	565.1 (440.5)	2.12*	1.19
자녀교육비	523.8 (378.6)	449.3 (379.6)	2.80*	1.17
총 소비지출 중 구성비 <sup>a)</sup>				
자녀양육비 총액	0.256 (0.136)	0.243 (0.137)	0.75	1.05
자녀교육비	0.199 (0.097)	0.191 (0.107)	0.56	1.04
양육비지출에 대한 인지수준 <sup>b,c)</sup>				
다른 가계 보다 적다	44 (28.8)	50 (25.5)	5.99*	
다른 가계와 비슷하다	68 (44.4)	111 (56.6)		
다른 가계 보다 많다	41 (26.8)	35 (17.9)		

<sup>a)</sup> 각 수치는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냄. <sup>b)</sup> 각 수치는 빈도(%)를 나타냄

<sup>c)</sup>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 p<.05 \*\*p<.01 \*\*\*p<.001

<표 5>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자산, 부채 규모 비교

(n=355, 단위: 천원)

	전체가계 평균액			보유율 (%)		보유가계 평균액		
	저출산가계 (n=154)	출산계획 있는 가계 (n=201)	t-stat	저출산 가계	출산계획 있는가계	저출산 가계	출산계획 있는 가계	t-stat
총자산	234,172.1	237,503.9	-0.27	76.0	82.1	360,084.3	323,143.0	1.24
현금성자산	12,850.6	18,593.5	-1.98*	61.0	73.1	21,053.2	25,423.8	-0.89
투자자산	12,925.3	17,853.2	-1.05	48.1	63.7	26,898.6	28,035.2	-0.25
부동산	180,597.4	174,502.5	0.24	69.5	76.1	259,925.2	229,248.4	0.73
기타자산	27,798.7	26,554.7	0.21	53.3	65.7	52,207.3	40,435.6	1.84
총부채	25,546.1	21,079.1	0.98	55.3	69.1	53,001.1	34,519.2	1.99*
단기부채	2,585.1	4,733.3	-2.07*	44.2	54.7	5,854.4	8,649.1	-0.91
장기부채	22,961.0	16,345.8	1.23	48.7	63.2	47,146.7	25,870.1	2.34*
순자산 <sup>a)</sup>	208,625.9	216,424.8	0.61	76.0	82.1	307,083.2	288,623.8	0.65

a)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

\* p<.05 \*\*p<.01 \*\*\*p<.001

산 보유율 76%, 그리고 기타자산 보유율이 66% 정도로서, 전반적으로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자산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모는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신용카드, 세금미납액, 외상, 할부 등의 단기부채와 상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동차, 주택대출 등의 장기부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저출산가계의 44%,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55%가 단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저출산가계의 49%,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63%가 장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가 없는 가계를 포함하여 평균액을 조사한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단기부채가 저출산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그러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가계의 장기부채액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에 따라 부채총액 평균 역시 저출산가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장기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유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액이 유의하게 높기 때문에 장기부채 부담이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초래하여 저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앞서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비교한 것에 덧붙여, <표 6>에서는 두 집단이 현재 가계의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인지하며, 향후 5~10년 내에 가계 경제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경제수준을 0단계부터 10단계로 구분한 사다리 척도를 제시하고 현재의 가계경제수준과 미래의 가계경제수준을 표시하도록 한 결과,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 현재의 가계경제수준은 4.9정도로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향후 5~10년 후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전망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가 7.04로서, 저출산가계 6.43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미래의 가계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가계들이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내수시장의 불황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욕구가 작용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가계의

<표 6>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n= 355)

	저출산가계 (n=154)	출산계획 있는 가계 (n=201)	
	평균 (표준편차)		t-stat
현재 경제수준 인지 (0~10단계)	4.94 (1.26)	4.92 (1.25)	0.12
미래 경제수준 예상 (0~10단계)	6.43 (1.38)	7.04 (1.13)	-4.41***
	빈도 (%) <sup>a)</sup>		$\chi^2$
경제적 기대 낙관적 (현재<미래)	128 (85.3)	183 (93.8)	6.92**
비관적 또는 무변화 (현재≥미래)	22 (14.7)	12 (6.2)	

a)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 p<.05 \*\*p<.01 \*\*\*p<.001



90% 가량이 현재 보다는 나은 미래를 예상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는 94% 가량이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가계(85%)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자녀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론 현재의 소득수준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경제적 기대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자녀출산과 양육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계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무계획 없이는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 3.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특성이 자녀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그들의 소비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

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과 자녀양육비, 그리고 자녀양육비 중에서도 자녀교육비를 따로 분리하여 그 지출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표 7>에서 주효과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상호작용 효과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독립변수가 저출산가계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회귀계수를 합한 값이 된다. 만약 상호작용효과와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해당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부부 연령의 평균값을 사용한 연령 변수는 모든 가계의 총

<표 7>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sup>a)</sup> (n= 355)

독립변수 (괄호 안은 준거집단)	총소비지출 (ln)		자녀양육비 (ln)		자녀교육비 (ln)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부부연령평균 (ln)	1.09*** (0.24)	-0.06 (0.34)	2.69*** (0.54)	0.31** (0.10)	6.03*** (1.41)	1.14* (0.51)
교육수준 <sup>b)</sup> (고졸이하)						
대졸, 전문대졸	0.33 (0.24)	-0.19* (0.08)	0.32 (0.41)	0.20* (0.09)	0.59 (0.87)	-0.51(1.12)
대학원 이상	0.37* (0.18)	-0.32* (0.15)	0.64 (0.45)	-0.67 (0.62)	-0.19 (0.92)	0.39 (1.20)
남편 직업 (무직/학생)						
서비스/사무직	-0.12 (0.10)	0.22 (0.16)	-0.33 (0.30)	0.46 (0.49)	-0.68 (0.55)	0.74 (0.91)
전문기술/관리직	0.08 (0.09)	0.29* (0.14)	0.39 (0.29)	0.64* (0.29)	-1.02 (0.62)	1.34** (0.41)
아내 취업여부 (비취업)						
취업	0.18** (0.06)	0.17* (0.08)	-0.21 (0.18)	0.32* (0.16)	0.22 (0.34)	0.21** (0.08)
월평균가계소득 (ln)	0.46*** (0.08)	-0.03 (0.11)	0.67** (0.24)	0.17* (0.08)	1.19** (0.38)	0.28* (0.13)
순자산 <sup>c)</sup>	-6.99E-7 (9.22E-7)	3.38E-6* (1.61E-6)	-1.31E-6 (2.88E-6)	2.43E-6* (1.14E-6)	1.31E-6 (5.31E-6)	1.49E-6* (0.80E-6)
미래 예상경제수준	0.03 (0.02)	0.03 (0.03)	0.08** (0.02)	-0.03* (0.01)	0.11* (0.04)	-0.09* (0.04)
상수항	-1.47 (0.89)	0.16 (1.41)	-9.03*** (2.14)	-1.72 (4.33)	-24.02*** (5.24)	8.55* (3.98)
	F = 14.83*** R <sup>2</sup> = .56		F = 6.61*** R <sup>2</sup> = .38		F = 5.98*** R <sup>2</sup> = .37	

<sup>a)</sup> 단순화한 회귀식  $\ln Ci = XA + D_j XB$  (where, X는 독립변수 벡터,  $D_j = 0$  (출산계획 있는 가계) 또는 1 (저출산가계), A와 B는 회귀계수 벡터)에서, A가 주효과를 B가 상호작용효과를 의미함. 그러므로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독립변수 계수는 A, 저출산가계의 독립변수 계수는 A+B가 됨.

<sup>b)</sup>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 중 더 높은 쪽을 택함

<sup>c)</sup>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의 값을 가진 표본들로 인하여, 로그변환을 적용하지 않음.

\* p<.05 \*\*p<.01 \*\*\*p<.001

소비지출,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부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가계의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 중 더 높은 교육수준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고졸 집단 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지출액 수준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저출산가계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출수준을 살펴보면, 저출산을 결정한 대졸(전문대졸 포함) 집단이 출산계획 있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집단 보다 유의하게 많은 액수를 지출함을 알 수 있었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이나 관리직일 때 총 소비지출 및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지출액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아내의 취업여부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에서 아내가 취업을 한 경우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출산가계가 유의하게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가 취업활동을 하는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자녀양육비와 자녀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저출산가계는 자녀 한명에 대한 기대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저출산가계 및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의 총 소비지출과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회귀모델에서 월평균가계소득과 각 비목별 소비지출액에 로그변환을 취했기 때문에 월평균가계소득의 주효과 계수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소득탄력성을 의미하고, 이 계수에 상호작용효과 계수를 더한 값이 저출산가계의 소득탄력성을 의미한다. <표 8>은 <표 7>에 나타난 소득탄력성 수치를 간략하게 재정리한 것이다.

고전적인 Kyrk(1933)의 연구에 근거하여, 소득탄력성이 0 보다 크고 1 보다 작으면 생활 필수재로, 소득탄력성이 1 보다 크면 사치재로 간주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분류인데, 필수재는 소득의 증감에 따라 그 지출도 같이 증감하지만 그 비율이 소득의 변화율 보다 작은 경우이고, 사치재는 소득이 증감할 때 지출이 소득의 변화율 보다 크게 증감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양육비 총액의 소득탄력성은 저출산가계가 0.84,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0.67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Douglas (1980)가 분류한 2차재 정도로 볼 수 있다. 자

녀교육비의 경우에는 저출산가계의 소득탄력성이 1.47, 출산계획 있는 가계 소득탄력성이 1.19로서, 두 집단 모두에서 1 보다 큰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의 증가율 보다 큰 폭으로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서, 자녀교육비 지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큼을 입증한다.

또한 자녀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 모두에서 저출산가계의 소득탄력성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소득탄력성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가계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소비욕구가 유의하게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더 많은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출하며, 소득탄력성 역시 이처럼 더 높다. 이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가 자녀 양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대신 자녀의 질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켜 더 많은 인적자본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소득탄력성 비교

지출비목	저출산가계	출산계획 있는가계	차이 검증
총 소비지출	0.43	0.46	-0.03
자녀양육비 총액	0.84	0.67	0.17*
자녀교육비	1.47	1.19	0.28*

\* p<.05 \*\*p<.01 \*\*\*p<.001

가계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구한 순자산 변수가 각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총 소비지출 및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모두에서 저출산가계의 순자산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순자산 보다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서, 저출산가계 경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순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액 증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수준(0단계~10단계로 측정)에 따라 각 비목별 소비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파악해 본 결과,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에서 미래의 가계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가 클수록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지출액 증가분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출산과 양육이 단일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와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구조를 비교하고, 두 집단의 자녀양육관련 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하고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부부의 연령이 높고 아내가 대졸 교육수준에 직장노동을 하며 가계소득이 높았다. 또한 결혼지속기간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자녀연령은 높았으나 자녀성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자녀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를 따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두 비목 모두 저출산가계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산 및 부채 보유율이 낮았으며, 장기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미래의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자녀양육관련 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부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대졸일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 관리직이며 아내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저출산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저출산가계는 자녀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 모두에서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여줌으로서, 자녀에 대해 높은 소비욕구를 나타냈다. 특히 자녀교육비는 두 집단 모두 1 이상의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여주었다. 순자산의 영향력은 저출산가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미래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기대는 저출산 가계 보다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에 유의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는 자녀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따르는 기대비용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보다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따르는 기대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직장노동의 기회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한다는 미안함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비용 역시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 저출산가계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수준이 더 높다는 점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자녀의 양 보다는 자녀의 질을 통해 자녀에 대한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인적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자녀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러한 현상의 확산은 저출산 추세의 지속화 뿐 아니라,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이라는 부작용을 내어 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방지하면서 자녀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질의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보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고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장기부채가 많고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유망적인 소득과 소비지출수준은 높지만, 저량적인 자산상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두 집단 간의 소득과 소비지출구조만을 비교하면 저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 부분을 논의하기 어렵지만, 자산상태나 미래에 대한 경제적 기대수준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봄으로서, 저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소득수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계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무계획이 바탕이 되어야만 자녀출산 및 양육이라는 재무결정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결국 각 가정마다 20여 만원의 출산보조수당을 주는 정책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금액을 모아 육아 및 교육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질 높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가계의 자녀양육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하고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 이상이라고 답한 결과는 출산장려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입안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외부환경 및 조건을 개선해 주면 추가적인 출산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이다. 보육시스템개선, 기업의 육아지원과 같은 육아관련 정책의 보완은 물론이거니와, 공교육의 정상화, 여성의 취업환경 개선, 여성과 노인 유희노동력의 활용,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가족문화의 정착 등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입안자, 인구 보건 복지분야 행정가 및 전문가들에게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출산의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혼 혹은 신혼기의 잠재적 의사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자녀양육비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탈가족화 등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가 지속되는 한 출산을 감소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인 바, 저출산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저출산 현상을 다각도에서 이해하는 가운데 자녀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가정을 저출산가계로 정의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자녀를 아예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기대이익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비교하는 가족경제학적 모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5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1월 31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2월 26일

#### 【참 고 문 헌】

- 구성열(1979).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력. *한국개발연구*, 1(3), 131-146.
- 김혜순(1982). *한국 부인의 이상 자녀수 감소 변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동아일보(2004). 윤홍식 시론: 저출산 원인부터 살펴라. 2004. 1. 18.
- 문숙재·정순희·허경옥(2000). *가족경제학*. 서울: 교문사.
-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조대희·김유경(1993). 최근의 출산력 변동요인과 인구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선일보(2004). 가족표어 어떻게 변했다. 2004. 6. 28.
- 중앙일보(2004). 애 없는 부부 24% 출산계획 없다. 2004. 9. 15.
- 통계청(1980~2002). 인구동태통계. www.nso.go.kr
- 통계청(2004). 2004년 2분기 가계수지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서.
- 한국일보(2003). 2100년 한국인구 현재 절반이 노인. 2003. 2. 18.
- 허경옥(1997).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추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 연구*, 8(2), 1-19.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ecker, G. S. (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ant, K. W.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in, G. G. & Dooley, M. D. (1976). Estimation of a model of labor supply, fertility, and wages of married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4), 179-199.
- Douglas, E. (1980). 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41-46.
- Espenshade, T. (1984). *Investing in children*.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Kooreman, P. & Wunderink, S. (1997). *The economics of household behavior*. New York: St. Martin's Press.
- Kyrk(1933).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Harper & Brothers.
- Magrabi, F. M., Chung, Y., Cha, S., & Yang, S. (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Schultz, T. W.(1982).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